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3.20원 상승한 1,125.80원에 마감

6일 환율은 전일대비 3.20원 상승한 1,125.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70원 상승한 1,125.30원에 개장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에 글로벌 달러화 강세를 보이며 갭업 출발한 환율은 장중 내내 1,125원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1,125원 위에서는 네고, 아래에서는 결제수요가 나오며 수급상 공방을 벌였고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은 제한되며 전일 대비 3.20원 상승한 1,125.8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29.54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25.30	1126.70	1124.10	1125.80	1125.5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28.05	1032.51	1027.51	1032.16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47.51	1359.02	1347.23	1358.05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	-0.31	-0.99	-1.92
	결제환율(수입)	0.29	0.77	1.02	1.32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회복하며...1,120원대 하회 시도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25.80원) 대비 5.50원 하락한 1,120.4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에 위험선호심리 회복하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청구자 수는 49.8만 명으로 예상치(53.8만명)를 하회하고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하회하며 고용 시장 개선 기대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른 경기회복 낙관론에 위험선호심리 회복하며 달러-원 환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공업체 수주를 비롯한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은 하락압력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제를 비롯한 저가매수 유입 및 금일 밤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은 하락 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17.50 ~ 1124.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983.6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50원 ↓ ■ 美 다우지수 : 34548.53, +318.19p(+0.9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7.0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626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